

제 1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총회에 부쳐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회장
김 채 옥

과학교육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가 출범한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잠깐 사이에 굳건한 토대를 다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저희 학회가 한국의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우 일 년밖에 되지 않은 학회지만 벌써 400분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지난 1월 3일에는 초중고 과학교사를 위한 첫 번째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고, 지금까지 3권의 학회지를 발간했고, 8월 23일에는 대망의 첫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현장과학교육학회의 첫 번째 학술대회를 대학교나 전문 회의장이 아닌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여는 것은, 현장 중심의 실천적 과학교육을 지향하는 저희 학회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은, 다시 말해 가르치는 것은 학문이기 이전에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이론이 있어도 교실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과 과학교육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과학에서는,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면 더 이상 그것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노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회나 학술지가 정보가 교환되는 직접 마당이며, 별도의 통로가 필요 없이 직접 마당에서 새 정보를 얻은 과학자들은 바로 자신의 연구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교육은 다릅니다. 학회나 학술지에 우수한 과학교육 이론이 발표되었다더라도 그것을 발표한 연구자가 직접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손, 즉 교사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교육 연구와 과학교육 활동이 교실이라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실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교사가 수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에 가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 내용과 실천 중심의 과학교육 이론, 이것이 바로 현장과학교육학회가 나아가려는 방향인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열린 첫 번째 워크숍에서와 마찬가지로 8월 23일에 열리는 첫 번째 학술대회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회 운영,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과학고등학교를 학회 장소로 내주시고 후원까지 해 주신 세종과학고등학교 신정숙 교장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한국의 과학교육 발전과 나아가 과학기술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값진 땀방울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한국을 끌고 나갈 과학자로 성장할 학생들, 그 학생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힘을 얻읍시다.

8월 23일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뵈겠습니다.